
2022년 제15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4. 8. ~ 4. 1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4. 8.	시청률	0.000

【총 평】

서울시 '공공 캠핑장' 9곳으로 확대와 '경희루 내부 특별관람 재개, 옛 정취 만끽'은 코로나19의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봄을 맞아 야외로 나가려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도기의 모습이 반영되었다. 자유·평화 지킨 희생 '유엔군 참전국 전적지'에 가다, '영국,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기부 행렬 이어져'는 6·25 한국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을 통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이 밖에 전국 111개 대학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와 취업 고민 덜어줘요, 달려가는 '일자리부르릉' 버스는 취업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 서울시 '공공 캠핑장' 9곳으로 확대
지난해 9월 구로구 향동에 조성된 천왕산 가족캠핑장은 30개의 텐트를 칠 수 있고 책 읽터, 암벽 타기, 산책로가 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맞춰 서오릉 근린공원에 앵봉산 캠핑장을 만들고, 권역별 캠핑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경희루 내부 특별관람 재개, 옛 정취 만끽
경희루 내부를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를 재개하게 되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연못 안에 세워진 경희루는 궁중 연회가 열리거나 왕이 쉬어가던 공간답게 웅장함과 고즈넉함이 공존하며, 화려한 무늬의 천장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 전국 111개 대학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등지를 틀었다. 고용노동부가 학생들에게 진로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했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 111개 대학 캠퍼스에 마련했다.
- 취업 고민 덜어줘요, 달려가는 '일자리부르릉' 버스
지난 2009년에 운영을 시작한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는 구직자 상담을 통해 13,500여 명이 취업했다. 올해부터는 주거취약계층, 다문화, 미혼모와 한부모, 자립준비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소아암 환자 도와요 '사랑의 헌혈' 운동
우리나라 소아암 환자는 매년 1천 4백 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고액의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혈액이 부족한 요즘 사랑의 헌혈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 대전 유성관광특구 내 '옛 대통령 별장' 개방
대전 유성관광특구의 계룡스파텔에는 대통령 별장용으로 지어진 '비룡재'가 있다. 유성구는 온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비룡재를 무료로 개방하고 할인행사를 시행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4. 9.	시청률	0.040

【총 평】

태권도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K-팝과 태권도를 접목시킨 새로운 퍼포먼스로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K-타이거즈의 대표와 함께 K-타이거즈의 문화와 영향을 소개했다. K-타이거즈는 일반적인 태권도 시범이 아니라 음악과 다양한 동작을 도입해 새로운 태권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는 태권 퍼포먼스 그룹이다. 특히 모모랜드의 '뽀뽀'와 BTS '피 땀 눈물', '뽀로로 바나나 댄스'등 다양한 퍼포먼스 영상이 주목을 끌었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는 낙산공원 야경의 아름다움을 낙산공원을 찾은 외국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보했고, 다슬은 고향인 제주의 야경 세연교를 추천했다.

【구성 및 내용】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국 문화가 태권도이다. 태권도를 배우는 미국 어린이들이 학원에서 태권도 수업과 함께 배우는 인성과 예절 교육을 일상에서 실행하면서 미국 학부모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다. 전 세계의 210개국에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해 있으며 현재 1억 명 이상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생생 K컬처'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로 태권도를 알리고 있는 K-타이거즈 대표와 함께 K-팝 태권도의 매력과 세계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해외 교류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K-팝 태권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K-타이거즈는 1990년 창단해, 30년 동안 세계의 곳곳을 다니면서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K-타이거즈의 시작이었고, 태권도를 하나의 문화로서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K-타이거즈의 대표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공연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태권도 최초의 단독 공연을 펼친 것이다. 참 인원이 무려 130명이 넘었고 외국 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공연이었다. 공식 유튜브에서 화제가 '모모랜드의 뽀뽀'은 조회수 1700만을 기록했으며, 무대를 보고 감탄하는 해외 팬들의 댓글이 호응도를 대변한다. 특히, 'BTS의 피 땀 눈물' 퍼포먼스는 조회수 1600만을 달성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뽀로로 바나나 댄스'를 보여준 주니어 K-타이거즈의 퍼포먼스도 인기를 끌었다.

현재는 'K-타이거즈'를 비롯해서 태국과 합작으로 완성한 영화 '더 킥'을 제작했고, 웹드라마 '하이스쿨 오브 좀비'를 방송해 다양한 장르와 태권도를 결합하는 노력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콘텐츠 발전, 공로 표창장을 수상했다. 앞으로 태권도를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크게 발전시키고 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K-타이거즈'의 멤버로 활동한 트로트 가수 나태주 씨는 'K-타이거즈'의 매력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공존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에서는 핀란드에서 온 사연을 통해 서울을 방문할 때 권하고 싶은 서울 야경 명소로 낙산공원을 소개했는데, 초저녁 불빛의 현란한 서울 야경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이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4. 9.	시청률	0.061

【총 평】

‘지리산에 폭 빠진 나무꾼과 선녀’편에서는 지리산 자락에 숲속 미술관을 만드는 귀산 33년 차 ‘숲 바보’ 남편과 남편을 적극 응원하며 나무를 가꾸며 보람에 사는 ‘남편 바보’ 부인의 부창부수 사랑의 스토리로 자연 사랑, 부부 사랑, 가족 사랑을 일깨웠다. 돈벌이는 안되지만 좋아서 하는 남편과 이를 묵묵히 지원하는 부인의 깊은 사랑과 파킨슨병을 이겨내기 위해 도전하는 남편의 의지에서 긍정적 삶의 철학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남편 이발해주는 부인, 부모의 산촌 일대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아들, 숲속 미술관 만들기, 새 집 만들어 설치하기, 경기용 오토바이 타기, 부부의 산나물 캐기와 화전 요리 등 다양한 이벤트 구성이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지리산의 봄꽃 향연과 지리산 자락에서 부부가 산나물을 채취해 향긋한 밥상을 즐기는 모습이 영상효과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지리산에서 33년째 살며 숲속미술관을 만들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 깊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파킨슨 병 진단을 받고 어릴 적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숲속 미술관을 만들고 있는 남편과 그의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있는 부인의 모습을 가슴 뭉클하게 잘 담아냈다. 또한 부부의 애뜻한 사랑을 가감 없이 자연스럽게 담아낸 구성이 돋보인다. 특히 꽃을 든 아내 사진을 찍으며 “당신이 꽃이다!”, 봄의 향연 밥상을 받으며 “맛있다!” 등의 이야기가 부부애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깨웠다.

지리산 자락인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에서 살고 있는 부부는 지리산이 좋아 비닐로 된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 염소를 키우고, 숲을 가꾸며 살다보니 어느새 30년 세월이 훌쩍 지났다. 숲속 미술관을 꿈꾸게 된 건 천장에 비가 새서 도배를 하려는데 아이들이 천장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전기도 없이 살았던 비닐하우스부터 현재 오늘, 미래까지 그려져 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이들의 그림 속 이야기를 압축해 바보의 숲속에 펼쳐보자는 생각이 들어 숲속미술관을 만들고 있다. 숲속 미술관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의 모습을 최대한 이용해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술품을 배치해 어우러지게 꾸미고 있다.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르는 남편은 좁은 길 하나에도 산과 숲에 폭 빠진 그의 철학이 담겨있다. 숲속미술관의 모든 작품은 자연에 있는 소재, 쓰다 버린 건축 자재, 폐농기구 등을 이용해 만들고 있다. 재활용 자체가 돈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고, 창의적 발상에 도움이 된다. 파킨슨 병 진단 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숲속 미술관은 오늘도 서서히 완성되고 있다. 숲은 사람보다는 동물을 위한 공간이다. 정성껏 만든 새집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부부의 꾸밈없는 일상을 다큐 형식으로 담아내 소확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의 삶을 선물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4. 10.	시청률	0.000

【총 평】

‘친북’에서는 북한이 보여준 다양한 행보와 한반도 긴장 현황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과 분석이 주목을 끌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위협 담화는 무력시위가 임박했다는 증거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슈텔링’에서는 북한의 농촌 기피 현상과 북한 농촌에 새롭게 불고 있는 과학 농사 열풍의 이면에 대해 흥미롭게 전달했다. 북한 농촌에 과학 농사 열풍이 새롭게 불고 있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과학 농사 열풍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지난 4월 1일 서욱 국방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그 미사일의 ‘발사 원점, 지휘시설, 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의 속뜻은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군의 능력은 그것을 발사하기도 전에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4월 3일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담화문을 발표했는데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고 있다”며, ‘참변을 피하려면 자숙할 것’이라는 다소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북한의 유일한 자존심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서욱 장관이 건드렸기 때문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부부장의 두 번째 담화문은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우리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처럼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고 다소 상반된 온도차를 보였다.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난항을 예상하게 했다.

북한의 연이은 입장문이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아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실린 것을 보면 미국을 향한 협상 재개 압박 효과와 함께 한국을 향한 경고,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살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한이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7번째 실험은 없을 것 같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국가 행사가 4월 15일에 있을 예정이고,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슈텔링’은 북한의 농촌 생활을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겨울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당과 국가가 중대시하고 최우선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에서 농부는 혁명 전사이다. 그러므로 혁명 전사와 결혼하는 것이므로 애국심으로 결혼하는 것이다. 북한의 농사일이 너무 고되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직업을 바꾸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고 제대군인을 강제로 농촌에 배치하는 등 농촌 장려를 위해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4. 10.	시청률	0.000

【총 평】

‘블랙핑크 한복 디자이너’와 ‘K-한복 세계를 입다’에서는 한복의 우수성과 세계화를 위해 도전하는 젊은 여성 한복 디자이너의 열정이 그려졌다. 특히 한복과 한푸,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한복의 특징, 환경과 한복, 한복의 세계화 등을 조목조목 짚어본 구성이 한복 이슈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했다. 한푸에 대해 김단하 한복디자이너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의 우기기에 불과하고 한푸와 한복은 다르다고 단언했다. 최근 중국 한푸와 우리 한복 논쟁이 크게 벌어진 시의성을 살려 유명 걸그룹 블랙핑크의 한복을 만든 한복 디자이너를 통해 한복의 우수성, 한복의 특징, 페트병 재활용으로 재탄생하는 한복의 멋과 한복의 세계화 전망까지 고루 살펴보았다. 또한 페트병에서 추출된 원료를 재활용해 한복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소개한 점은 환경정책 홍보차원에서 의미가 컸다.

【구성 및 내용】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온 한복을 디자인한 김단하 씨가 출연해 한복에 대한 철학과 한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적 실험을 하며 한복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끌어 낸 기획이 돋보였다. 또한 한복업계에서 시도한 적 없는 페페트병을 활용한 한복제작을 위해 대출을 받으며 제로탄소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며 한복에 대한 젊은 디자이너의 열정을 보여줬다. 특히 입기만 하는 한복이 아니라 메타버스 등 콘텐츠적으로 접근해 전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함께 즐기고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한복을 만들고 싶다는 김단하 씨의 포부를 잘 담아냈다.

한복이 블랙핑크 뮤비에 등장하면서 젊은 층의 각광을 받고 있다. 블랙핑크가 입은 한복은 캐나다 밴쿠버 패션위크에 나왔던 의상들이다. 캐나다에서 한복 패션쇼를 했는데 국내 패션쇼는 한복이 특수복으로 분류되어 패션쇼를 진행하기 어렵다. 외국 모델은 한복 입는 법을 모르고 도우미들도 몰라서 한복 착용법에 대해 많은 교육이 필요했다.

김단하 씨는 2016년 한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직장을 다니며 결혼식 한복을 온라인으로 대여하는 사업도 했다. 외국을 나갈 때 한복을 직접 입고 나가면 외국인들 반응을 느낄 수 있었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시장이라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 한복을 한푸로 우기지만 모양과 뿌리가 다르다. 전통한복과 개량한복은 뿌리는 같다. 개량한복은 물빨래가 가능한 원단을 쓰고, 치마에 주머니를 만들어 실용성을 더했다. 한복은 종이처럼 접히는 평면재단이라 입는 사람에 따라 주름이 생기는 자기만의 옷이 된다. 김단하 씨는 페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로 만든 옷을 만들고 있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박물관을 다니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색감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전시도 다니고 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4. 10.	시청률	0.002

【총 평】

‘폐비닐, 세련된 패션소품으로 변신’편에서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화함으로써 친환경 재활용과 탄소중립 실천의 그린뉴딜 메시지를 전달했다. 영국 유학생 출신으로 그린뉴딜 청년창업 최우수 기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출연해 각종 아이디어와 간소한 제작 공정으로 지속 가능한 신제품 개발을 하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해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 특히 폐비닐로 만든 세련된 디자인의 가방과 모자 제품을 직접 선보여 친환경 업사이클링 인식을 공유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음식 배달 증가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폐비닐 재활용 등을 부각한 구성이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과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또 청년 작가들의 출연해 청년세대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어떻게 고민하는지, 꿈과 열정, 도전을 표현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구성 및 내용】

폐비닐을 활용해 패션잡화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있는 업모스트 대표가 출연해 재활용의 주요성과 기성제품과 비교해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공감할 수 있게 잘 풀어냈다. 영국에서 패션을 전공했는데 유럽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슈가 다뤄져 왔고, 자연스럽게 친환경제품에 대해 공부했다. 학교에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책임의식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걸 배웠다.

업모스트는 폐비닐로 가방, 모자 등 여러 패션소품을 제작한다. 과자나 라면 봉지 같은 비닐은 아니라 PE비닐만 사용한다. 다양한 종류의 비닐을 혼합하고 압착해서 제작하다 보면 다양한 모양, 색의 제품이 탄생한다. 그리고 이런 제작과정을 간소화하고 공정시간을 단축하여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였다. 패션소품 외에도 재활용 홍보와 다양한 활용처를 제시하기 위해 인테리어 제품으로 확장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어워드’에서 수상한 대표와 2명의 작가가 출연해 재활용품을 이용해 작품 활동의 의미를 개성 있게 표현해 낸 구성이 몰입감을 높였다. 환경문제라는 공동의 주제로 각자 폐비닐,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

폐비닐을 활용해 패션잡화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있는 업모스트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린뉴딜 탄소중립분야 청년창업 우수기업 1위로 선정되었다. 또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예비패키지에 선정되었고, 그린뉴딜 청년사업분야 최우수기업과 시민투표로 이뤄진 쓰레기 환경대상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업모스트 대표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려운건 아니라며, 조금씩 노력한다면 진정한 환경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목적 수거를 하는 재활용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폐비닐에 대한 유가보상을 하며 수요창출을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4. 10.	시청률	0.004

【총 평】

‘오미크론(發) 대유행, 고비 넘겼나?’편에서는 국내 오미크론 전파 경과 및 현황, 그리고 정부의 방역 대응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방향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에서 오미크론 전파까지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주부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감염병 유행시 정부의 대처와 국민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주었다. 또 올해 2월 오미크론에 확진된 고등학생의 자가격리 경험담을 들어보고, 오미크론 전파력이 위중증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거점 약국 약사의 인터뷰를 통해 팩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치료제 복용에 대한 차이점과 안정성, 세심한 관리와 과정을 보여주어 신뢰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2일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역학조사분석단장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 사회에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브리핑을 전했다. 지난 2월 오미크로 확진을 받은 한 학생은 확진 판정 후 7일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했고 함께 어울린 친구들도 PCR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았다.

지난 3월 기준 국내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99.99%를 기록했고 국내 유입부터 대유행까지 넉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 1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동네 병원, 의원 중심의 검사와 치료 체계가 전환’됨을 알렸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기존 3T(검사, 추적, 치료) 전략으로 개편해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에서부터 조기 진단과 치료까지, 민간이든 공공이든 전체 의료자원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동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전파력이 2~3배 약하기 때문에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적 대응은 점진적으로 풀어가고 있고 이제 일상과 조화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으로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확진의 정점에 아직 이르지 않은 현재로서 방역조치 완화는 아직 이르다는 의료진의 의견이다. 또 고위험군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동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지난 3월 말부터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자가 급증하고 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의 하위변이로 최근 필리핀, 네팔, 카타르, 인도 등에서 오미크론 점유율을 추월하고 있지만 중증 발생률이 낮아서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